

‘무너진 스리백’ 흥명보호, 파라과이전서 명예회복 할까

브라질에 0-5 완패 ‘낙제점’
내일 20시 파라과이와 평가전
수비 안정화·포트2 수성 목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 ‘고난도 모의고사’로 치른 브라질전에서 ‘낙제점’을 받은 흥명보호가 파라과이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10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5로 대패한 터라 흥명보호에 파라과이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흥명보호는 세계적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새롭게 시험 중인 스리백 수비라인을 가동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중원을 구성하며 스리백을 90분 동안 ‘극한 테스트’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흥명보호의 ‘플랜 A’가 될 가능성이 있는 스리백 전술의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냉정하게 확인해 본 건 작지 않은 소득이다.
그러나 기록적 참패를 당한 건 분명히 뼈아픈 지점이다. 한국이 A매치에서 5점 차 이상으로 패한 건 9년 만의 일이다.
파라과이 역시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다.
월드컵 조 추첨 포트 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파라과이전에서 ‘필승’해야 하는 이유다.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을 4개 포트(12개국씩)로 나눠 추첨을 통해 포트별 한 팀씩 같은 조에 배정한다.
개최 3개국을 제외하고 FIFA 랭킹 1-9위는 포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 한국 선수들이 실점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1, 10-23위는 포트2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포트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강팀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현재 랭킹은 23위로, 포트2 골자리에 걸려 있다.
파라과이에도 진다면 흥명보호는 24위 에라도르, 25위 호주 등에 밀려 포트3로 내려갈 수 있다.
다음달 A매치 2경기 성적까지 반영해 발표되는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포트가 배정된다.

파라과이는 FIFA 랭킹은 한국보다 14계단 낮은 37위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강팀을 한 번씩 잡는 저력을 보여줬으며 참가 10개국 중 6위에 오르며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뛰는 디에고 고메스와 지난 시즌

까지 잉글랜드 뉴캐슬에서 6년을 뛰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소속인 베테랑 미겔 알미론의 공격 2선이 경계 대상 1순위다.
남미예선에서 팀 내 최다인 4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안토니오 사나브리아(크레모네세)의 움직임도 주의해야 한다.
흥명보호로서는 브라질전에서 크게 흔들린 수비

라인이 파라과이전에서는 제구실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전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친 빈공까지 해결해야 홈 팬들 앞에서 시원하게 승전고를 울릴 수 있다.
한국인 A매치 최다 137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브라질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교체로 물러난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비롯한 공격수들의 발끝에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최하위 안산에 패해 시즌 4연승 불발



K리그2 34라운드 최정원 자책골로 안산에 0-1 패

전남드래곤즈의 4연승이 자책골과 골대 불운으로 무산됐다.
전남드래곤즈가 1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34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최정원의 자책골로 0-1로 패했다. 연승행진은 3연승에서 마무리됐다.
전반 시작과 함께 아쉬운 장면이 만들어졌다.
전반 41초, 안산 제페르손의 땅볼 크로스가 오른쪽에 있던 최정원의 몸에 맞은 뒤 그대로 전남 골대로 들어갔다.
이후 불운은 계속됐다.
전반 39분 발디비아가 박스 안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이승빈의 호수비에 막혔다. 흐

른 공을 잡은 호난이 오른발로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추가 시간 발디비아가 다시 한번 아쉬움을 삼켰다. 발디비아가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골대를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김경재, 르분을 뺀 김현석 감독이 최한솔, 정지용으로 변화를 줬다.
교체 멤버로 투입된 정지용이 후반 5분 역습 상황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이승빈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조성훈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16분에는 호난이 조성훈의 호수비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후반 28분 발디비아가 페널티 박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섰다. 그러

나 이번에도 몸을 날린 조성훈에 막혔다.
전남은 18개의 슈팅을 날렸고, 6개의 유효슈팅도 만들었지만 골문이 파르지 않으면서 슈팅 4개, 유효슈팅 1개에 그친 안산에 승리를 내줬다.
김현석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지만 운이 따르지 못했다. 초반 실점 이후 선수들의 피로도 누적됐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눈에 띄었다”며 “연승은 3연승에서 멈췄지만, 이제 남은 다섯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다.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남은 5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로 전남은 부천FC에 3위 자리를 내줬다. 승점 2점 차 밖에 있던 부천은 부산아이파크를 2-1로 꺾으면서 전남을 밀어냈다.
전남은 19일 오후 4시 30분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2 35라운드 충북청주FC 원정경기에서 3위 탈환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

역도 박혜정, 2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 우뚝

송영환 3위·광주시청 손현호 용상 등

한국 역도가 함께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얻고 2025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마감했다.
합계 메달 순위는 공동 5위다. 인상, 용상, 합계 총 메달 순위에서는 6위(금 3개, 동 3개)에 자리했다.
박혜정(22·고양시청)은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피르데에서 열린 대회 여자 86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5kg, 용상 158kg, 합계 283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합계 기록으로

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3개 부문 모두 메달이 걸렸다. 박혜정은 금메달 3개를 독식했다.
이날 박혜정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안고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박혜정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24년 바레인 마나마 대회에서는 2위에 올랐다.
박혜정은 올해 피르데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다.

남자 최중량급(110kg 이상)에서는 송영환(24·홍천군청)이 인상 175kg, 용상 235kg, 합계 410kg을 들어 3위에 올랐다. 인상에서 7위에 머문 송영환은 용상에서 3위에 오르며,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이양재(아산시청)는 합계 405kg(인상 180kg·용상 225kg)으로 4위에 자리했다.
전날까지 남자 79kg급 손현호(광주시청)가 용상에서 동메달 1개만 땀을 뻘, 합계 메달 없이 대회 마지막 날을 맞은 한국은 박혜정과 송영환을 앞세워 함께 노메달과 노골드 위기에서 벗어났다.
북한은 합계 메달(금 5개, 은 3개, 동 1개)과 인상, 용상, 합계 전체 메달(금 17개, 은 5개, 동 1개)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홍정민, KLPGA 놀부·화미 마스터즈 우승

다승·상금 단독 1위

홍정민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다승 공동 선두, 상금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홍정민은 12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파 72·6748야드)에서 열린 K-푸드 놀부·화미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합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서교림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은 지난 5월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8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이예린, 방신실과 함께 시즌 다승 공동 선두가 됐다.
이올러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획득한 홍정민은 누적 상금 12억9401만6667원으로 노승희(12억8735만9754원)를 제치고 상금 랭킹 4위에서 단독 1위로 뛰어올랐다.
홍정민은 대상 포인트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끌어올렸다. 1위 유현조와는 100포인트 차이다.
홍정민은 이날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쳤다.
그는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면서 2위 그룹과 격차를 벌렸다.
4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1.83m 옆에 붙이며 첫 버디를 잡았고, 5번 홀(파4)에서도 세컨드샷을 홀 0.8m 앞에 떨어뜨리며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8번 홀(파5)에선 5.1m 거리에서 버디 파트에 성공했다.
홍정민은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댄으며 손쉽게 우승하는 듯했으나 14번 홀(파4)에선 파 퍼트를 아쉽게 놓치면서 2위 서교림에게 두 타 차로 쫓겼다.



홍정민이 12일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푸드 놀부·화미 마스터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KLPGA 투어 제공>

홍정민은 남은 홀에서 침착하게 파 세이브 행진을 펼치면서 서교림과 두 타 차로 마지막 18번 홀(파5)에 들어갔다.
서교림은 버디 파트에 성공해 격차가 한 타로 줄었으나 홍정민은 침착하게 파 파트를 떨어뜨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박주영은 10언더파 206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유현조는 9언더파 207타로 이다연, 송은아, 박혜준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
2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달렸던 이동은은 이날 1오버파 73타로 부진해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 9위로 미끄러졌다.
상금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준 노승희와 다승 공동 1위 방신실은 4언더파 212타로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다승 공동 선두 이예린은 5언더파 211타로 공동 1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